



김래원의 영화 속 클래식 이야기



음악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을까? 영화 '어거스트 러쉬'를 보는 동안 내내 머릿속에 맴돌았던 물음이다. 프레디 하이모어(에반 역)의 독백으로 시작되는 영화의 첫 장면. "음악은 우리 주위에 항상 있지, 바람 속에도, 공기 속에도, 빛 속에도, 그저 우리는 듣기만 하면 돼!"

가슴에 사무치는 목직한 이 대사는 영화의 전체를 아우른다. 부모의 얼굴조차 모르지만 음악 속에서 그들을 만날 수 있다고 믿는 고아 에반, 운명처럼 다가온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는 청년 밴드의 리더 보컬 루이스, 그리고 미혼모였던 자신이 낳은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11년 만에 알게 된 첼리스트 라일라.

이 세 사람의 헤어짐과 만남을 다루고 있는 '어거스트 러쉬'는 무작정 음악을 믿고 이끌어 가는 어린 고아 에반의 여

림 만날 수 없는 아들, 그녀는 복귀 무대에서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모든 것들을 활에 실어 첼로 현을 긁는다.

엘가의 '첼로 협주곡 마단조'는 그의 작품들 가운데서 최고 명작임은 물론 첼로 협주곡의 역사에서도 영원히 기억될 곡이다. 특히 다른 첼로 협주곡들과 달리 도입부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모든 슬픔을 쏟아내는 첼로의 절규는 이 악기가 가진 서정성과 슬픔의 정서를 가장 극대화시킨 선율이라 말할 수 있다.

엘가 첼로 협주곡의 연주사에서 첫 번째로 기억될 하나의 인물은 바로 '자클린 뒤 프레(Jacqueline du pre)'이다. 이 협주곡의 비통한 선율같은 삶을 살아가던 여류 첼리스트로, 수없이 많은 유명 연주자들이 이 곡을 연주하고 녹음했지만, 자클린 뒤 프레의 연주보다 더 슬픈

광주비엔날레 국내외 문화교류·교육 활발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이 이탈리아 프리울리 모자이크학교, 카셀 도큐멘타와 문화 교류를 추진하는 등 국내외 무대에서 활발한 성과를 내고 있다.

또 지역 대학과 손잡고 미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광주의 대표 문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동안 전시에 치중했던 재단이 미학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참여했던 프리울리 모자이크학교와 지역 문화 산업을 연계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현대적인 작품까지 아우르는 전 세계 유일의 모자이크 전문 교육·연구기관이다. 지난 2009년 열렸던 제3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 출품작으로 초청돼 광주에 첫 선을 보였다.

광주시와 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프리울리 모자이크 학교의 첫 해의 분교를 광주에 유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달 31일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베니스, 영국 런던 등지에서 해외 홍보를 펼치고 있는 재단은 또 "카셀도큐멘타 캐롤린 크리스토프 디렉터와 협의를 통해 카셀과 광주비엔날레가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프리울리 모자이크 학교와 문화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프리울리 학교 교수들이 화순을 방문해 작업하고 있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시- 프리울리 모자이크 학교와 협약, 광주분교 유치도 추진 서강정보대·조선대 협력 도슨트 양성·국제큐레이터코스 진행

▲프리울리와 손잡다=재단은 5일 "광주시와 함께 지난 3일 이탈리아 프리울리주 시청사에서 마우리치오 프란츠 주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갖고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자단체는 예술과 디자인 분야의 공공 또는 민간단체 간 문화예술 교류, 모자이크 학교, 공공디자인 관광산업에 이르기까지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922년 설립된 프리울리 모자이크 학교는 전통적인 방식과 소재의 작품부터

논의 중이다"고 덧붙였다. 카셀도큐멘타는 베니스비엔날레, 바젤아트페어와 함께 세계 3대 미술 행사로 손꼽히는 중요 행사다.

▲전문가 양성에도 '박차'=재단은 서강정보대학과 공동으로 오는 7월~8월 23일 이 대학에서 도슨트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수업은 국비로 진행되며 재단 조인호 정책연구실장, 안미희 정책기획팀장, 이은하 전시팀장, 김은영 전시 부장 등이 강사로 나와 전시 기획 과정 등을 강의한다.

또 전남대 정금희 교수, 송은갤러리 이모숙 관장, 광주시립미술관 윤익 학예실장, 박

성현 큐레이터 등 각계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와 현대 미술의 다양한 양상을 소개한다.

재단은 또 8월8일~9월3일까지 27일간 제3기국제큐레이터코스도 진행한다. 광주비엔날레, 디자인비엔날레 기간에 전 세계 예비 기획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며 유명 전문가들이 강사진에 대거 포진했다.

이번 과정은 조선대와의 협력으로 진행되며, 지도 교수는 저명한 큐레이터이자 MIT의 교수인 우테 메타 바우어가 맡아 시각문화 예술 관련분야 활동가와 전공자들에게 현장교육의 장을 제공한다.

그동안 큐레이터코스를 맡아 온 지도교수는 제1기에 브뤼셀비엔날레 창설자인 바버라 반더리덴, 제2기는 현재 뉴올리언즈비엔날레 감독인 덴 카메론 등 현대 미술계를 이끄는 거물들이었다.

또 이번 코스에는 제4회디자인비엔날레 승효상, 아이 웨이웨이 감독을 비롯해 2012년 광주비엔날레의 공동감독인 김선정(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 한국), 마미 카타오카(모리미술관 수석 큐레이터, 일본) 등이 강의와 세미나에 참가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어거스트 러쉬' 中 엘가의 '첼로 협주곡 op.85'

사랑을 낳는 음악, 운명을 부르는 음악

정을 따른다. 앞뒤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철저한 논리로 무장된 영화들을 보다가, 우연과 불합리한 사건들로 가득찬 이런 영화를 보면 공허함을 느낄 법도 한데, '어거스트 러쉬'의 감독 스티븐 웨리단은 오직 음악으로 이 모든 공백을 메워버린다.

음악 영화를 표방하고 있는 '어거스트 러쉬'에는 수많은 음악들이 등장한다. 루이스를 연기한 조나단 리스 마이아가 직접 노래한 샵샵 밴드 넘버들도 멋지고, 기타리스트 카키 킹의 핑거 스타일 기타 연주도 멋지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압권인 음악은 역시 '엘가의 첼로 협주곡'이다.

11년 만에 자신이 낳은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라일라.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고 다니지만 어질런 운명처럼

연주는 없다.

이상하게도 다른 연주를 들으면 '참, 슬프게 연주한다고 생각되는 반면, 뒤 프레의 연주를 듣다보면 첼로 자체가 '슬퍼서 노래하는 느낌'이 드는 것이다.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희귀 불치병에 걸려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고 쓸쓸히 죽어간 그녀의 삶이 슬픈 엘가의 선율 그 자체였을까. 뒤 프레는 온몸이 마비되어 서서히 죽어가면서도 자신이 연주한 엘가 첼로 협주곡의 녹음을 듣는 일이 많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곤 했다고 한다. "들을 때마다 몸이 찢겨나가는 기분이 들어요... 눈물 조각들처럼... 어떻게 하면 삶을 견딜 수 있죠?"

한 여성 첼리스트의 사랑과 운명을 불렀던 그 음악, 엘가의 첼로 협주곡이다.

<음악 칼럼니스트>



예술 인재들의 꿈과 희망의 무대

광주예술고 '예향제' 9일까지 학생교육문화회관

광주예술고등학교(교장 박정진)가 오는 9일까지 지난 1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예향제'를 개최한다.

지난 3일 오후 4시30분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전시실에서 펼쳐진 전시회(9일까지)를 시작으로 국악·음악·무용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인다.

6일 열리는 국악과 공연은 정악합주, 가야금병창, 독주·사물놀이, 관현악 합주 등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진다.

또 7일에는 무용과 학생들의 흥겨운 춤사위가 이어지고, 8일에는 음악과 학생들의 무대가 펼쳐진다. 관현악합주, 피아노·바이올린 협연, 혼성중창, 피아노 4중주, 합창 등 흥겨운 노래와 연주가 곁들여진다.

그밖에 미술과, 한국화과 학생들이 참



여하는 전시회는 16일부터 23일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열린다. 문의 062-520-884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여름 밤 스크피아 오케스트라와 함께

7월 19번째 정기연주회... 피아니스트 최희연 협연

스크피아 오케스트라(단장·지휘 박문경) 19번째 정기연주회가 7월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첫곡은 70이 넘는 노작곡가가 자신의 음악 인생을 돌아보며 만든 백병동의 '현을 위한 3장'이다.

피아니스트 최희연씨는 모차르트의 '피아노협주곡 9번'을 협연한다. 6살 때 인천시향과 협연으로 데뷔한 최씨는 이태리 비토루, 부조니 콩쿠르 등에서 상위 입상했으며 현재 서울대 음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피날레곡은 모차르트의 '교향곡 25번'이다.

지역의 실력과 음악인들을 중심으로 지난 2000년 창단후 활발한 활동도



박문경 최희연
펼치고 있는 스크피아 오케스트라는 특히 첼리스트 조영창, 바이올리니스트 양성식, 피아니스트 강충모·김대진 씨 등 유수의 연주자들과 협연 무대를 가진 바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30,000원부터**
(기본 3인상 이상)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moviehelic

따뜻한 봄 즐거운 영화와 함께하세요

상무점

1관 씨니 (15세)

2관 케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

3관 케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

4관 케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

5관 케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

6관 케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

7관 케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

8관 케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

9관 케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

10관 케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

삼국지 명장 관우

상당원현경 발병 - (1번 or 2번) - 0번

☎ 1588 - 7941

한토사랑 영화사

클롬버스시네마

1관 케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

2관 케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

3관 케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

4관 케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

5관 케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

6관 케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

7관 케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

8관 케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

9관 케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

10관 케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

조조 영화한편 어떠세요? /오남최대주장 / www.cinus.co.kr

3,000원 저렴하게, 선착순 30분께 이벤트 팝콘 증정

MEGABOX

M관 엑스맨-퍼스트클래스 (12세) 최고등급

2관 케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

3관 케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

4관 엑스맨-퍼스트클래스 (12세)

5관 케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

6관 케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

7관 케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

8관 케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

9관 케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

10관 케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

구. 런던약국사거리

☎ 1544 - 0600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치터워, 황금주치터워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그분이 돌아오셨다!

복구보건소 건너편

☎ 1544-0070

CINUS

1관 케리비안의해적-낫선조류 (12세)

2관 케리비안의해적-낫선조류 (12세)

3관 케리비안의해적-낫선조류 (12세)

4관 케리비안의해적-낫선조류 (12세)

5관 케리비안의해적-낫선조류 (12세)

6관 케리비안의해적-낫선조류 (12세)

7관 케리비안의해적-낫선조류 (12세)

8관 케리비안의해적-낫선조류 (12세)

9관 케리비안의해적-낫선조류 (12세)

10관 케리비안의해적-낫선조류 (12세)

색깔있는 영화선책 •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